

장애와 예술, 전통과 현재가 맞닿는 순간

국립무형유산원, 25~26일 'WITH 무형유산' 공연 '윤슬, 함께 빛나는 각각의 물결'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에 대공연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설공연 'WITH 무형유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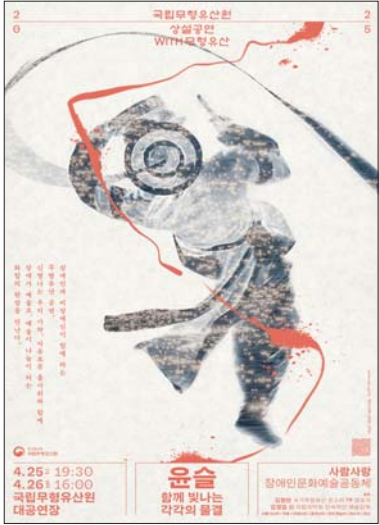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장애인문화예술 공동체 '사람사랑'을 주축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시각·지체·지적·청각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치며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화적 포용의 가치를 조명한다. '사람사랑'은 "장애를 예술로, 예술을 나눔으로"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예술교육, 복지 시설 방문공연,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악무대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단체다.

'윤슬, 함께 빛나는 각각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 기반으로 한 '사물시나위', 타악과 선율이 결합된 '음악난타', 궁중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춘앵전과 모란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해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보성소리' 최예나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 '수궁가'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봉) 김청만 보유자가 함께해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인 김영길 명인이 '아쟁산조' 독주 무대를 선보이는 등 원로 전통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해 공연의 예술적 깊이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WITH 무형유산' 공연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상설공연 'WITH 무형유산' 포스터

청소년이 펼치는 국악·밴드 합동 공연

내달 4일 남원 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밴드부 '윗어스' 무대

남원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관현악단 및 요천면 일원에서 제95회 춘향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연으로 5월 4일 오전 11시,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남원 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과 밴드부 '윗어스(With us)'가 준비한 합동 공연의 색다른 무대이다.

이 공연은 중학생뿐 아니라 작년 정기연주회에 함께했던 고등학생과 졸업생들도 참여하여 국악과 밴드 편곡으로 재해석한 합주곡을 선보인다.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이색적인 조화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안겨줄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창의력,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탄생한 의미 있는 무대다. 같은 학교 안에서 국악과 밴드라는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경험해 온 학생들이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국악과 서양 악기의 이질감을 넘어 '전통의 계승'이라는 춘향제의 메시지를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구현하는 자 리이자, 전통예술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선정

김의식 작가 '삼단 광한루 진열장' 대상

남원시에 따르면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에서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이 대상(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전통 옷칠 목공예의 계승과 신진작가들의 발굴·육성을 위해 열리는 이 대전에서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 37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으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심사는 옷칠, 목공예, 나전칠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집한 일반 참관인이 함께 심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전은 지난해에 비해 20대의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며, 앞으로 옷칠 목공예 분야 성장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와 신진작가들의 참가율도 높아지면서 전통성

이 강한 작품과 함께 옷칠로 디자인한 일상생활 목공예품의 비중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평이다.

대상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은 나전기법을 활용, 옷칠 목공예 고장인 남원을 상징하는 광한루와 이몽룡 그리고 성춘향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합하여 전통성과 지역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며, 모란꽃과 나비 문양을 통한 길상적 의미를 농밀하게 해석하여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작품의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금)일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진행하고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5월 2일~5월 6일(화)까지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5월 27일~6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의식 작가 '삼단 광한루 진열장'

더리터, 3년 연속 전주국제영화제 스폰서십 참여

오는 30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개막을 앞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 더리터가 3년 연속 전주국제영화제 스폰서십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더리터는 한국영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3년부터 후원을 시작

했다. 올해도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게스트들과 관객들을 위해 푸짐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내외 게스트들과 영화제를 방문한 관객들을 위해 전국 더리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쿠폰과 스파클링 음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외의 게스트들은 게스트센터

에서, 관객들은 전주 영화의거리 메가박스 앞에서 열릴 버스킹 공연 전후로 진행되는 관객 이벤트에 참여해 받을 수 있다.

영화제를 방문하는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5월 1~8일까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옆에 설치될 전주국제영화제 페스티벌존에서 커피트럭을 운영한다. 커피트럭에서는 간단한 물렛 이벤트 참여만으로도 현장에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 달하미술관, 이선 작가 전시 개최

인생의 길과 내면의 미로를 화폭에 담은 이선 작가의 전시가 정읍 달하미술관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정읍시는 지역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로, 이선 작가의 '나를 찾아가는 길'을 오는 6월 5일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선 작가의 개인전으로 신태인, 연지, 수성 달하미술관 세 공간에서 서양화화 작품 14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선과 색의 형태로 감정과 사유를 표현하는 추상화 기법을 통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감정과 내면의 흐름을 화폭에 담았다.

전시의 중심 키워드는 '길'과 '미로'다. 작가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겪는 혼란과 사유, 타인과의 연결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왔다.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품마다 진하게 배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정읍 달하미술관, 이선 작가 전시 개최

인생의 길과 내면의 미로를 화폭에 담은 이선 작가의 전시가 정읍 달하미술관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정읍시는 지역작가를 조명하는 전시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로, 이선 작가의 '나를 찾아가는 길'을 오는 6월 5일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선 작가의 개인전으로 신태인, 연지, 수성 달하미술관 세 공간에서 서양화화 작품 14점을 만나볼 수